

# 우유의 잉여

본협회 전무 김 남 용

우유가 남는다는 것을 얼마전만 하여도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일이 되고 말았다.

85년도에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원유 계획생산 및 유통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서를 내 놓았으며 86년도에는 이 연구집을 중심으로한 토론회도 갖았었다. 이 연구서가 나오자 여기 저기서 이에 관한 반응이 나왔었다. “계획생산” 말도 안된다는 여론도 많았다. 이 연구서의 주 내용은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 원유 대차등지급, 끝으로 계획생산으로 되었다. 우유가 남는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계속 잉여되겠느냐는 것이 계획생산제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하였다. 우유수급의 예측은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우유잉여가 일시적이고 우유가 부족하였다면 그 계획서는 수요예측을 잘못하였다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보고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유의 체화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고개를 가우등하며 그 계획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 계획서가 나온지 2년, 그 계획서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2년간에 우유의 잉여는 쉬지않고 계속되어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제 우유를 담아놓은 보가 터져 우유가 밀어 닦

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이유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검토가 되었다면 지금쯤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지않았겠느냐하고 아쉽기도 하다. 그러나 이조때의 당쟁을 방불케 설왕설래하는 사이 상황이 급변하였다.

모 유업체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부적이기는 하나 계획생산에 돌입하였으며 이 계획서를 내놓은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도 금년 12월부터는 계획생산에 돌입하지 않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유를 감당 할 수 없다고 하며 또 모 유업체에서도 젖소의 자연증식은 인정하되 젖소를 구입하여 우유를 증량 생산하지 말라는 공문을 낙농가들에게 발송하였다고도 한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신규낙농가의 우유는 유업체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

많은 낙농 후계자 그리고 농촌부업으로 어렵게 젖소 송아지를 구입 금이야옥이야 길러 치새끼를 낸 농민들, 우유를 팔지 못하여 발을 동둥구는 안타까움.

우유 잉여를 어떻게 해결하라.

현재도 연간 2만 1천여톤의 유제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그중에 50%이상이 유제품의 원료로 유업체에서 수입하고 있으니 이 또한 놀랄일이 아닐 수 없다. 농민들이 볼때는 이 2만여톤의 유제품이 수입이 안되면 우유의 잉여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나 이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니 이 수입문제가 우유잉여가 되면 언제나 논의가 되풀이 되고 있으나 수입량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한결같이 우유가 남아 돈다. 우리가 우유를 수출할 수는 없다. 우유의 국제시세는 정당한 가격이 아니고 덤핑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와같이 우유가 세계적으로 잉여되고 있어 옆친데 옆친격으로 우리나라에도 유제품의 개방압력이 서서히 밀어 닦치고 있다. 치즈공장의 합작이 제1호이며 덴마크의 농무장관도 언젠가 우리나라에 와서 유제품개방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공산

품이 E.C 국으로 점차 그 수량이 늘려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공산품의 수출이 늘면 늘수록 우리에게 가중되는 것은 축산물의 개방압력이다.

축산물중에서도 그들이 잉여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 제품이 바로 유제품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제품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덴마크, 화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가며 낙농관계 기술강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우리나라의 낙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들의 시장개척을 하기위한 전초전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유도 많은 양이다. 젓소도 많은 수로 증식되었다.

우유를 많이 내야 하겠다는 낙농가들의 의지도 높다. 우리 주위의 여러가지 여건이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크고 작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동물약품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이 대량생산 되고 있고 수의사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 수정란 이식등 새로운 기술이 물밀듯이 밀어닥치고 있다. 사료도 더욱더 효율이 높아가고 있다. 더 많은 우유생산을 위하여 주위의 모든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유의 소비는 낮잠에서 깨어난 듯 멍하니 있는 상태다.

우유소비확장에는 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 장벽을 뚫어야 하는데 기력이 쇠진하였다. 좁은 골안에서 이리 뚫으려하고 저리 뚫으려하며 좌충우돌하다 기운이 쇠진하여진 것이다. 마치 죽어가는 투우와도 같은 꼴이라 할까.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나라의 낙농은 이 시점을 고비로하여 쇠퇴하여지고 말 것이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만 죽는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죽게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낙농업이 죽게되는 것이다. 흠어진 개개인의 힘으로 부딪치면 개개인만 죽게된다. 우리 모두가 한데뭉쳐 부딪치면 우리 주위에 겹겹이 쌓인 장벽이라 할지라도 부서질 것이다.

학교급식중 중고등학교의 우유급식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원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그 성과가 미진하며 우유에대한 그릇된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유소비의 큰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낙농가들도 유대의 극히 일부를 각출하여 우유 소비가 더 되도록 조사사업과 홍보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많은 우유를 먹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우유를 먹도록 갖가지 방법을 계속 동원하고 있다. 때로는 국가 원수가 더 많은 우유를 먹으라고 국민들에게 권유하기도 한다. 영국의 처칠경과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며 우리나라도 우유홍보지에 처칠경의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도 하다.

“우유의 잉여” 이것은 그 해결책을 놓고 각자 자기들의 의견만을 고집하여 평행선을 달리게 할때는 이미 지났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낙농관계자 전원이 일치단결하여 꼴벌들이 움직이듯 분주히 움직이는데서만 해결될 숙제인 것이다.

낙농분야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여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고들지 않고 외곽에서 맴만 돌고 있어서는 안된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며 낙농상황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 원유차등가격제, 그리고 우유의 잉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자는 계획생산등의 말이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린지 오래되었다. 무엇인가 결론이 내려질 때가 되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빠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우유는 남고 있다. 신규낙농가들은 우유를 팔수가 없다. 유업체에서는 우유생산량의 증가를 홍수때 강물이 불어나는것같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 불안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있다.

우유의 잉여, 무엇이던간에 결론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